

#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Caregivers

우석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부

부교수 이 성 희\*\*

부교수 이 승 미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Sung-Hee

Associate Professor : Lee, Seung-Mie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constitute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caregivers and to analyze the system of implementation. Based largely on a pre-existing program for caregiving families, I developed a new educational program. Personal time management and personal needs management were added in the content of the program order to help enhance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The reconstituted educational program, which consists of 6 sessions, was implemented on a small group of caregivers in Jeollabukdo Province who support their elderly parent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a pre-test, a post-test, a follow-up test and open-questionnaire reports. The results from the post-test suggest that the program has been effective in improving the knowledge on aging process, internal control and self-esteem. But the follow-up test results show the program has been effective only in improving the knowledge on aging process. According to the open-questionnaire reports, the program seems to have been effective in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ir elderly parents.

---

▲ 주요어 : 노부모부양자 교육프로그램(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caregivers), 자존감(self-esteem), 내적 통제성(internal control)

### I. 문제의 제기

현재 한국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960년의 2.9%에서 1980년의 경우 3.8%, 1990년에는 5.1%, 2000년의 경우 7.2%로 증가하여 우리사회는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인 7%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년기의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 본 논문은 2002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주저자 : 이성희(E-mail: sorak61@hanmail.net)

서, 노인부양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부모 생계부양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1998년의 경우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8.2%로 나타났는데, 이는 94년의 62.1%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절반이상이 노부모부양을 자식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양에 대한 의식은 변화했다 하더라도, 노인부양에 대한 공적 지원이 미비하고 노년에 대한 개인적 준비가 미흡한 현재 노인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실제적으로 자식들이 느끼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능력한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며, 그 결과 부양자들은 우울감이나 걱정의 증가, 신체적 건강 악화, 부양자와 다른 가족

원 사이의 갈등증가 등의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노부모의 의존성에 따른 부양스트레스는 노부모 학대와 연결되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검증(이성희·한은주, 1998)되고 있다.

현재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방향이 지금과 같이 “선가족 후국가”의 기초를 유지하는 한, 가족 내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은 상당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부모부양에 대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여주고 노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부모부양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함께 노부모부양의 의미를 의미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옥경희, 1996)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부모부양의 의미를 인간의 도덕적 발달과 연관시켜 이를 보다 성숙한 차원에서 부양자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자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향상과 성숙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노부모부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지식적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부양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발달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인관계의 강화를 위해 먼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해소방법, 그리고 개인의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구조화 방식 등과 같은 개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통제력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실제 자기통제력이 낮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Chung, 1992, 이정연 외, 1996에서 개인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양의 부담을 줄이고 부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양자 개인의 자기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교육내용은 노부모관계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상대방 혹은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고 무책임하게 대처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가족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은 당연하다. William Glasser(1998)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가족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에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며, 이러한 모든 행동은 외부작용이 아닌 내부작용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발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통제력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존감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사고의 변화는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통제력, 자존감의 향상은 결국 노부모부양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장기적 대처능력을 신장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실제 노부모부양 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옥선화 외 2인, 1994)에서 노부모 부양자들, 특히 며느리의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과 개인의 시간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자원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시간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특성을 지닌다(이기영 외 3인, 1998). 특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함에 따라 시간부족을 느끼게 되는 부양자의 경우 다양한 역할에서 요구되는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역할간에 균형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시간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자원으로서의 자기통제력, 자존감의 향상을 위한 자기욕구 충족에 대한 인식과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구조화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은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노부모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시간관리와 욕구관리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에 따른 효과검증에 집중해왔다면 가족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성과가 상당정도 축적된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운영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기존의 계량적 효과검증방식이 교육의 효과를 타당하게 검증하고 있는지,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이 개인적 측면보다는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구성된 내용임을 감안해 볼 때, 보다 타당한 효과검증방법은 무엇인지 등 전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와 그 효과측정에 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선행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기초로 개인적 능력강화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보충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 축적을 위한 검증과 함께 운영방식이나 강사진 구성과 같은 제반사항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선행 노인부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분석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앞서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에는 홍숙자(1995), 홍숙자·이형실·전길량(1995), 이정연·정혜정·장진경(1996)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처음으로 실시된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프로그램(홍숙자, 1995)에서는 노인부양에 관한 요구도 조사(옥선화 외, 1994)결과

에서, 부양자의 부양지식과 정보인식수준은 낮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 수준이 전 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요구도 내용 중 기본적으로 '노인을 아는 지식'에 해당되는 사항을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들 4가지 영역은 ① 생물학적 노화과정 ②노화와 심리적 변화 ③노인복지프로그램/노후대책 ④관계이해와 가족유대감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은 5회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노화와 생리적 변화/노인의 질병/노인의 영양과 식습관 이해 ②노인의 정신건강과 대처책/중년기의 이해와 적응 ③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육구 이해/노인복지프로그램 및 서비스 활용/노부모부양의 역할분담/경제적 노후계획 ④관계의 이해와 적응/긍정적 인생 철학과 가치관 수립 및 자기통제력 강화/건강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의 자질 이해 ⑤건강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의 자질 중 인정과 시인, 격려의 기술 습득/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이다.

두 번째,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프로그램(홍숙자·이형실·전길량, 1995)은 앞서의 교육프로그램(홍숙자, 1995)을 토대로 6회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노부모와 노화 ②노부모의 마음 읽기(노인의 성격특성과 심리) ③며느리의 역할과 중년(여성부양자의 역할과 심리) ④남편의 역할과 심리이해(남성부양자의 역할과 심리) ⑤인간관계와 자기성장 ⑥건강한 가족(가족 친밀감과 결속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이정연·정혜정·장진경, 1996)에서는 가족스트레스와 적용에 관한 Double ABCX모델을 토대로 aA요인으로는 고부갈등, bB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사회적 지원,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 cC요인으로는 닳, 인간발달과 가족문화의 이해, 그리고 xX요인으로는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도로 개념화하여 다음과 같은 6회의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①시부모 마음 읽기 ②가족문화와 가족관계 ③자기통제, 닳, 사회적지지 ④열린 마음, 열린 대화(듣기) ⑤열린 마음, 열린 대화(말하기) ⑥효율적인 갈등해결 방법이다.

앞서 실시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근거로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실시된 교육프로그램(홍숙자, 1995)의 경우 부양담당자의 개인적 측면,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적 측면, 그리고 관계향상을 위한 기술습득영역에 비해 부양의 대상자인 노인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측면의 내용과 정보-노인관련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하여-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교육프로그램(홍숙자·이형실·전길량, 1995)에서는 <남편 초청의 날>(4회), <노부모 초청의 날>(6회)을 첨가하여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가족구성원-노부모, 아들, 며느리-들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을 떠나 집단적인 만남의 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내 관계의 역동성을 향상시키는데 보

다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이정연·정혜정·장진경, 1996)에서는 고부관계향상을 위해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적용하여 가족적응자원, 고부갈등에 대한 가족의 평가, 가족의 대처행동별로 교육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앞서의 교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고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가족체계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자원을 향상시키고, 고부갈등이라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한 부양자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며느리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 즉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양자인 며느리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보편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내용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노인부양에 관한 지식이나 가족 내 관계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양자 개인의 내적 자원에 대한 훈련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실제 가족생활의 결과를 예측하는 변인의 기준으로서 개인적 특성이 보다 중요한가 아니면 상호작용적 과정이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Kelly와 Conley(1987, 김현정, 김명자, 1999 재인용)는 최근, 개인적 특성의 관점이 간과되고 있지만 가족생활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현숙(2000)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인 자존감이 건강한 가족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존감과 자율성의 획득,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우선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성희(2002)는 부부관계강화를 위한 일차적 개입방법으로 개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내용을 기초로 사용하여 뚜렷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자아존중감 특성은 가족관계적 상호작용 과정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타인의 사랑을 수용하지도 못하며(Coleman, 1984, 변은주, 1996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해결 방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논의되고 있으며(정미향·김득성, 2001), Satir(1967)도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간주하고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선행연구들(양순미·유영주, 2002; 박정희·유영주, 2000; 어은주, 1996; 이성희, 2002)에서도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의 건강성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건강한 대인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성특성 특히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자아개념은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과 관련된 내적통제성과도 서로 연관된 개념으로, 대부분 내적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성격의 통합정도가 높고 사회성, 인내성, 관용성, 협조

성 등이 높아지면서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들의 환경에 대해 더 책임성 있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Phares, 1975; 이성희, 2002에서 재인용). 실제로 내적통제성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박성호, 2001; 이종숙, 1988)으로 볼 때, 통제소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람의 인성이나 인생관, 가족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관계수준에의 개입과 개인수준에의 두 가지 개입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노부모-부양자와의 관계수준에의 개입을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노부모의 노화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양자 자신의 개인적 자원향상을 위한 개입으로는 자기인식의 향상, 욕구충족에 대한 인식, 시간의 구조화방법의 습득, 부양자 서비스관련기관의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개인적 자원을 발달시키기 위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 III.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시

#### 1. 프로그램의 구성 기초 및 내용

본 교육프로그램은 부양자들의 어려움 감소를 위한 부양자 능력강화와 이를 통한 노부모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성된 선행연구들(홍숙자, 1995, 홍숙자와 2인, 1995, 이정연외 2인, 1996)에서 개발한 '노부모 부양자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이론적 기초로 사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6회기로 전체회기의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각 회기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각 회기별 전문가들은 본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과 목표 등을 2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조율한 후 각각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회기별에 따른 진행방식과 구체적인 강의내용 및 활동에 따른 시간 배분은 1회 배정된 시간 내에서 회기를 맡은 전문가에게 일임하였다. 따라서 회기를 맡은 진행자의 특성에 따라 진행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회기별 기본 구성지침과 이론적 기초는 다음과 같다.

1회기는 도입부분과 강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도입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같이 참여하여 인사를 나누면서 사전검사에 필요한 설문 실시하였고, 강의부분은 부양자들이 노부모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노인의 특성과 노인성질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노부모-성인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부모 부양에 따른 어려움, 긴장 및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옥선화 외 2인, 1994). 따라서 성인자녀들

을 대상으로 한 노인들의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자녀세대에 대하여 일방적인 효 사상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보상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조병은·신화용, 1992)에서 필요한 교육의 내용이라 볼 수 있다.

2회기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의 부양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고부관계의 특성, 고부갈등 유형, 며느리의 심리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주부양자가 딸이 아닌 며느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양이라는 것이 보은이나 사랑보다는 의무감이나 희생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김미경, 2000)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노인부양의 자발적인 성격이 약해지고 직접 낳아주신 부모보다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전가로 인하여 노인부양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김상욱, 2000; 김미경, 2000). 실제 어머니가 주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이광혁 외 1998). 이는 노인부양의 역할이 가족간에 분담되지 않고 주부양자에게만 일임되어 있고, 가족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며느리가 주부양자의 위치를 차지할 때 부양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써 부양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것(김태홍, 2001; 이영자·김태현, 1992)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회기에서는 며느리의 부양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룰 도와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회기는 자기자신에 대한 이해가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므로 자기성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며,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로 집단상담방식을 이용하였다. 자기성장 훈련은 개인으로 하여금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나은 발달을 이룩하도록 돕는데도 효과가 크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에 관한 자신의 행동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에서 놓여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형득, 1999). 실제 효행자 가족의 부양자에 대한 연구(김명자·김수연, 1999)에서 주부양자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양부담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얻는 심리적 보상감 외에 뚜렷하게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상황변화가 어려운 부양현실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공감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타인의 욕구, 상처, 외로움, 즐거움, 희열과 같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공감은 관심의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개방할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나눌 수 있게 된다(Corey, 1995; 김수연·심혜숙, 2001에서 재인용). 즉 고도의 공감에 있는 곳에 자신의 자아탐구가 있게 되는 것으로, 자기자신의 이해와 타인의 이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회기에서는 대인관계 강화를 위한 자기탐구 작업으로써 이형득(1999)이 개발한 '자아성장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집단상담의 접근법으로 구성하였다.

4회기는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으로써 시간관리, 즉 시간의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들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노인복지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으로 회기를 구성하였다. 개인의 시간관리전략과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없지만, 역할과중으로 시간제약을 느끼는 취업주부의 경우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간계획을 세우고, 일을 조직화하는 시간관리 전략을 사용할수록 개인생활 및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정숙·이정우, 1995)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시간관리 전략의 습득은 노부모 부양자들의 부양부담과 시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부담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시간관리전략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내적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향상과도 직결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 노인복지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사회와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서,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회기에서는 Stephen Covey의 2인(1994)의 시간관리전략의 적용과 함께 지역 내 노인복지관련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5회기는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특성, 대인관계 기술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루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서 자기자신의 욕구충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William Glasser(1998)의 선택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다섯가지 기본적 욕구충족에 관한 내용을 채택하였다. 즉 William Glasser(1998)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되고 있는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관한 훈련이 주부들의 자기존중감과 가족생활만족도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는 김임용(1994)의 연구와 이성희(2002)의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연구에서 실시한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에 관한 훈련이 부부들의 내적통제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6회기는 전체 회기의 종합으로 그동안 교육받았던 내용에 대한 느낌과 참여자들의 질문을 통한 전체 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회기별 주제와 목표 및 강사, 진행절차에 따른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 2. 실시방법

교육실시 대상자는 도내 거주 노부모 동거 혹은 비동거 부양가족원으로, 모집은 본 연구자가 속해있는 (사)전북가족상담치료센터에서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2년 3월-4월에 걸쳐 각종 홍보물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최종 모집된 대상은 자발적인 참여자 22명이었다. 교육실시기간은 2002년 4월 23일부터 5월 28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까지로 총 6회기 3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비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무료로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며 각 회기마다 그 회기에 맞는 지역전문가를 선임하였으며, 위에서 말한 기본구성 지침에 대한 합의와 조율과정 후, 각 회기의 교육내용과 진행방식을 주 진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위임하였다. 처음 1회기는 교육대상자 중 남성교육생도 1명이 포함되었으나 전체가 여성이라는 분위기 때문인지 2회기부터는 불참하였으며, 1회기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한 교육대상은 15명이었다.

## III. 프로그램의 평가

노인부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도구, 평가방법, 교육대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측정도구

노부모부양에 필요한 부양지식 및 정보수준, 자존감, 자기통제력, 부양인식 및 태도, 노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 1) 부양지식 및 정보수준

노부모 부양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수준측도는 홍숙자(1995)의 연구의 척도를 참고로 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반영하여 8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각 영역에 대한 지식 및 정보수준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1점(전혀 모른다)부터 5점(매우 잘 안다)까지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표 1> 노부모부양자교육프로그램

회기	주 제	목 표	주요 강의 및 활동내용	준비물	주진행자
1회기	· 오리엔테이션 · 노부모와 노화	· 집단구성원간의 유대 형성 · 노화와 생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 · 노인질병 이해	<활동> · 인사 나누면서 설문지 작성하기 <강의> ·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이해 · 노인병의 특징과 정신질환 ·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건강관리	· 사전검사지 · 명찰 · 주소록 · 교재 · 치매검사표 · 간식	김동인 (신경정신과 원장, 주간 노인보호센터장)
2회기	· 며느리의 역할 과 심리	· 고부관계의 특성과 유형 이해 · 부양자 역할과 심리 이해 · 효과적인 부양분담 방안 강구	<강의> · 고부관계의 본질 · 고부갈등 유형 · 며느리의 역할 및 심리 · 부양자의 갈등 해결책	· 교재 · 명찰, 간식	정수경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회기	· 인간관계와 자 기성장	· 집단상담을 통한 대인관계의 기초인 자기인식과 개별 성장 이루기	<활동> · 삶 나누기-이즈음 나의 하루는? · 나 찾아가기-별칭짓기와 소개, 자신과의 만남 (문장완성 시키기, 가장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몸 바라보기-몸으로 하는 자기소개, 이상한 거울(비 추어보기, 걸어보기), 얼음 땀 게임, 느낌 나누기.	· 교재 · 프로그램 워크북 · 명찰, 간식	심해린 (컬터 '사랑샘터' 대표)
4회기	· 부양자의 시간 관리와 정보망	·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부 양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노인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강의> · 시간관리의 원리와 전략 <활동> · 시간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 정하기, 시간의 스케줄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강의> · 노인부양을 위한 정보망	· 교재 · 시간관리 일지표 · 노인관련서비스기 관목록 · 명찰, 간식	이승미 (연구자)
5회기	· 건강한 가족, 건강한 나	· 건강하고 유대감 있는 가족의 자질의 이해와 기술 습득 ·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 한 자신의 욕구에 대한 인식 과 관리	<강의> · 건강한 가족의 자질과 요건 · 효율적인 의사소통 <활동> · 짝을 지어서 수용과 나 전달법에 관한 실습 <강의> · 행복을 위한 개인의 기본적 욕구관리 <활동> · 욕구강도 프로파일 점검하고 이야기 나누기 · 욕구충족을 위한 질적활동 점검하고 이야기 나누기	· 교재 · 개인육구 강도프로파일검사지 · 욕구충족을 위한 질적활동 점검표 · 명찰, 간식	이성희 (연구자)
6회기	· 토론 한마당	· 지난 회기의 통합과 적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활동> · 동그렇게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느낀 점과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자들과 이야기 나누기 · 사후질문지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비 해 간 선물 나누어 주기 · 교육이수증 나누어 주고 전원 사진 촬영	· 토론과식 재배치 · 필기구 · 사후검사지 · 선물 · 교육이수증 · 사진기	김현자(전북가족상 담치료센터 소장) 이성희(연구자) 이승미(연구자)

2) 자존감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alpha = .78$ 였다.

3) 내적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송현애(1993)가 구성한 내적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통제력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64$ 였다.

4) 부양인식 및 태도

부양자의 부양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홍숙자 외(1995) 연구에서 사용한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서, 요인분석결과 부양인식,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부양이 미치는 영향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부양인식(3문항)의 경우  $\alpha = .53$ 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에 대한 부담(4문항)의 경우  $\alpha = .65$ , 부양이 미치는 영향(4문항)의 경우  $\alpha = .71$ 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인식이 높고,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며, 부양이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5) 노부모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송현애(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4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나타내며, 신

뢰도는  $\alpha = .87$ 였다.

6) 사후, 추후 검사의 개방형 설문내용

본 프로그램의 수강경로, 참여동기, 가장 도움을 준 내용, 새로 배우게 된 점, 가족관계에서의 적용내용,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및 제안점 등에 관한 내용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추후검사에서는 교육 종료 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 수강 후 자신이나 부모와의 관계, 다른 가족관계를 위해 교육내용을 적용해 보신 경험이나 변화된 점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교육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부양 지식 및 정보수준, 자존감, 내적통제력, 부양인식 및 태도, 노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2002년 4월 23일에 실시된 1회기 시작 전에 참석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측정 문항과 개방형 설문내용을 포함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6회기를 모두 참석한 15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에 교육현장에서 실시하였다. 추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측정문항과 추후검사에 필요한 개방형 설문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시행방법은 교육 종료 약 1개월이 지난 7월 1일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사후검사에 참여한 15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우송하였다. 회수된 추후검사 대상자는 사후검사 대상자 중 3명이 누락된 최종 12명이었으며 추후 검사지 회수 종료기간은 7월31일로 약 1개월이 소요되었다.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C+ Wi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오차, 신뢰도분석, 비모수추정 중 Wilcoxon 검증을 실시하였다.

3. 평가대상자의 특성

본 평가대상자는 1회부터 6회기까지 모두 참석한 교육생 15명으로, 평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명(%)	항 목	구 분	명(%)
연 령	20대	1( 6.7)	학 령	고졸	8(53.3)
	30대	5(33.3)		전문대졸	1( 6.7)
	40대	6(40.0)		대졸이상	5(33.3)
	50대이상	3(20.0)		무응답	1( 6.7)
직 업	전업주부	13(86.6)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함	3(20.0)
	판매직	1( 6.7)		동거하지	12(80.0)
	기술전문직	1( 6.7)		없음	

IV. 평가결과 및 분석

1.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통계적 분석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양자들의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자존감, 내적통제력, 부양지식 및 정보에 관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개인적 측면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노부모 부양인식 및 태도, 노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관계적 측면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측면

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먼저 부양자 개인의 자존감, 내적통제력, 노부모부양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수준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사전, 사후, 추후검사의 점수를 비교하였는데, 비모수추정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점수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 내적통제력, 부양지식 및 정보인식수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부양자 개인의 자존감과 내적통제력이 향상되고, 부양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인식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실시 후 한달 만에 측정된 추후검사간 평균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양지식 및 정보인식수준만이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과 내적통제력 점수는 사전검사에 비해 추후검사 시에도 약간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객관적 지식의 증가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나 자존감과 내적통제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내적 과정이므로 교육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상과 치료의 맥락을 가진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재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Giblin,1996),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후교육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사후, 추후검사 모두 내적통제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홍숙자(1995)의 연구, 추후검사와의 비교에만 내적통제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홍숙자·이형실·전길량(1995)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이에 반해 부양지식 및 정보수준은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사후, 추후검사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표 3> 교육집단의 개인적 영역에 관한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점수비교

척도	M(SD)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비모수추정 (사전-사후)	비모수추정 (사전-추후)
자존감	35.3(5.2)	40.8(5.8)	38.1(5.1)	-2.47*	-1.31
내적통제력	13.9(1.7)	15.4(1.9)	14.5(1.8)	-2.16*	-0.77
부양지식 및 정보인식	25.1(2.9)	31.0(4.3)	30.7(3.6)	-3.54***	-3.58***

\*P<.05 \*\*P<.01 \*\*\*P<.001

2) 관계적 측면

본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노부모와의 관계가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사후-추후검사의 평균점수간의 차이를 비모수추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제시된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노부모 부양의식,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부양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노부모와의 관계 모두 사전-사후, 사전-추후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홍숙자 외 1995)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본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의 구성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육직후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보다 2점 정도 점수가 향상된 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으나 추후검사에서도 다시 원래의 점수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때, 교육의 효과가 지니는 시간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육 후 소모임을 통한 추후관리가 이루어져 교육직후 얻게 되는 효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 4> 교육집단의 관계적 측면에 관한 사전, 사후, 추후검사의 점수비교

척도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비모수추정 (사전-사후)	비모수추정 (사전-추후)
부양인식 및 태도	부양의식	7.6(1.9)	6.2(2.1)	7.7(2.3)	-1.83	-0.17
	부양부담	14.1(2.6)	13.5(3.0)	15.0(2.9)	-0.50	-1.01
	부양의 영향	13.1(3.1)	13.5(3.4)	13.3(3.1)	-0.42	-0.23
노부모와의 관계		14.5(4.7)	16.4(5.5)	14.8(5.3)	-0.94	-0.23

\*P<.05 \*\*P<.01 \*\*\*P<.001

2.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 평가 분석

프로그램에 관하여 계량적인 측정도구를 통한 사전-사후검사

외에 프로그램의 진행 및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자세한 느낌이나 변화, 평가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질문지 평가와 추후검사의 개방형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1) 사후검사 프로그램 내용 평가 분석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본 프로그램의 수강경로, 참여동기, 가장 도움을 준 내용, 새로이 배우게 된 점, 가족관계에서의 적용내용,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및 제안점 등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내용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 수강경로를 보면, 광고지, 생활정보지 등의 홍보물을 통한 경우가 6명, 주변의 아는 사람이나 친구의 권유로 6명, 본 센터를 통해서가 1명, 교회계시관을 통해서가 2명이었다. 참여동기를 보면 생활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가 1명,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6명,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1명, 무료강의이기 때문이라고 1명으로 대다수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참여하였다.

둘째, 가장 도움을 준 회기로는 1회기 '노부모와 노화'가 3명, 2회기 '며느리의 역할과 심리'가 3명, 3회기 '인간관계와 자기성장'이 3명, 4회기 '부양자의 시간관리 및 정보망'이 3명, 5회기 '건강한 가족, 건강한 나'가 4명, 6회기 토론 한마당이 1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질문에는 복수응답이 많아 응답율이 실제 참석자 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새로이 배우게 된 점으로는 9명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나이고, 먼저 자신을 잘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욕구관리가 중요하다, 자신의 시간관리를 위한 질적활동이 필요하다' 등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였으며, '노화에 대한 이해'가 1명으로 응답하고 있다.

넷째,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본 것으로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애씀'이 4명, '대화기법'이 1명, '치매검사' 1명, '욕구강도 프로파일 검사' 1명, '나를 발견하려고 함'이 2명이었다.

다섯째, 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노인성 정신질환' 2명, '노인심리'가 2명, '나 자신 알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3명, '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2명, '가족이 같이 배울 수 있는 대화방법'이 2명이었다.

여섯째, 강사만족도, 교육의 진행방식, 교육장소와 횟수 및 시간에 대한 의견에서는 대다수가 강사 및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장소에 대해서는 쾌적하여 좋다가 대부분이었으나 사내에서 좀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2명이 있었다. 그리고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자기발표시간이 더 있었으면 한다가 3명, 전체 횟수와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사람이 2명으로 이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되어진다.



일곱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써달라는 의견에 '심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가 3명,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명, '노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가 1명, '참여자가 적어 어렵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가 2명, '연락처, 후속모임 관리가 필요하다'가 1명, '1주에 1회의 시간간격이 너무 길다'가 1명으로 응답하였다.

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고 하겠다. 특히 본 프로그램이 기존의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개인의 시간관리 및 자기인식을 위한 욕구관리를 첨가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자들의 호응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종합토론 회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특히 부모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동감을 하면서 노부모에 대한 기초지식으로 인해 부모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게된 점에 전체의 이아가 모아진 것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2) 추후검사 내용 분석

교육 실시 1개월 후 실시된 추후검사에서는 본 프로그램 수강 후 자신이나 부모와의 관계, 다른 가족관계를 위해 적용해 보신 경험이나 변화된 점 등에 대한 개방형 설문을 첨가하였다. 이의 개방적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변화, 부모에 대한 태도의 변화,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등의 3가지 측면으로 범주화되었다.

### (1) 자기자신의 변화

먼저 프로그램 수강 1-2개월 후의 시간동안 나타난 변화 중, 부양자 자신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한 응답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자신감이 더해졌으며 사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온 주부인데, 이 프로그램 수강 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 좀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해 놓은 시간을 전 같으면 전전공공하고 있을텐데 요즈음은 미리 말씀드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강 전에는 내가 시어머니께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였는데...(중략),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닐을 알게 됨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습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의 내용들에서 교육이 부양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2) 부모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

두 번째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이전보다 달라졌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응답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으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을 이해하려 하고 도움(정신적,물질적)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부모님께 도움 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그분들의 계획에 될 수 있으면 맞추려 하고 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평소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면 30분 이상 들어야 하는데 전에는 짜증도 많이 냈는데 수강 후에는 친정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척 달라졌어요, 예쁘다고 칭찬도 하게 되고 사진도 찍어드리고...(중략), 수강 후에 이렇게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게 될 줄 몰랐어요

육체적, 심리적으로 약하신 노인이므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드려야겠고, 대화도 어머니 위주로 해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음. 내 자신 너무 나 위주로 살았음을 깨달았고, 부모님의 소외감, 동증, 불편함에 대해 관대해졌습니다

**강의 후 친정부모와 시부모 어느 쪽이건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갈등이 심한데 자식 입장에서 먼저 헤아려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으로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익이 된 것은 노인건강 등에 대하여 알게됨으로써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시어머니에게 대처하기가 쉬워졌다

이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노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의 주도권이 부양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상대방에게서 특히 노인의 특성상,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노부모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계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일 것이다. 실제 부양자의 노인학대에 관한 응답에서 노부모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서로간의 이해 및 관심부족을 1순위로 꼽은 이성희·한은주(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 (3)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세 번째로는 나와 부모님만의 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관계까지 적용되어 전체 가족 역동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측면에서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직장, 친구, 동네어른을 대하는 것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기술한 내용들의 범주로 다음과 같다.

친정어머님과와의 관계도 더 좋아졌지만 친정동생과 친정조카와의 관계도 좋아져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느낌입니다. 같이 사는 친정식구들 때문에 남편과 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것을 느끼며 더 나빠지지 않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 후 역할분담으로서 시누이와 같이 역할분담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지금 현재는 모시고 있지 않지만 주말에 찾아오는 것으로 마을에 많은 부담과 육체적인 고통을 덜 받고 있다

시댁 가족들이 가진 그들 나쁜의 관계와 그들 사이에 끼여든 이방인으로서의 나와 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역동적인 가족관계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출발해 보려고 노력한다.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체를 보는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집에 고짜리 아들이 있는데 통 딸이 없어 저도 같이 딸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관심을 보이고 하니깐 딸뎡이 많이 트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노부모 프로그램 덕분이 것 같아요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인사 및 말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건네게 되었다

직장의 특성상 자원 봉사하는 70세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할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었는데 이에 대한 조절 및 인간에 대한 단계별 특성을 함께 인지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변에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정말 아쉽다.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고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존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부양자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가족원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후 1-2개월이 지나도 개인의 자존감, 노부모를 대하는 태도, 전반적인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부모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는 다른 진술의 내용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인 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앞서 계량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사후, 추후검사점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통계량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결과라 하겠다.

## V. 논의 및 제언

성인자녀에게 노부모 부양은 하나의 발달과업으로 이해되어

져야 하는 규범적 과제이며, 또한 이에 대하여 사회로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 하겠다(옥경희, 1996).

이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는 부양자들의 부담을 덜고 원만한 노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지식, 정보 및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의 적용을 통한 프로그램의 재구성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선행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서 선행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또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노부모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관한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홍숙자, 1995, 홍숙자 외 2인, 1995)를 근거로 하여 노부모 부양자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프로그램의 홍보와 기타 인적 관계망을 통하여 알게된 자발적 참여자 중 6회기 모두 참석한 15명의 노부모 동거 혹은 비동거 부양자이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결과는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통한 구조화된 질문지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응답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하였으며, 사전검사는 1회기 시작 전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사는 6회기를 모두 마친 후 교육현장에서 1회기부터 6회기까지 모두 참석한 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후검사는 교육 종료 약 1개월이 지난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우송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추후검사 대상은 12명이었으며 추후 검사지 회수 종료기간은 약 1개월이 소요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 면에서 보면, 교육프로그램 수강 후 교육생들의 개인적 차원인 자존감, 내적통제력, 부양지식 및 정보 인식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으나 수강 후 1-2개월 후의 추후검사시에는 부양지식 및 정보인식만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는 내적 과정인 자존감과 내적통제력은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관계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부양인식 및 태도, 노부모와의 관계영역에서는 사후, 추후검사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차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노인을 부양함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숙과 노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노인 부양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한 가족이 감당할 능력 밖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인부양의 특성과 한계를 나타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자를 도와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노인부양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을 보다 공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측면에서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차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본 교육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는 관계차원보다 개인차원에의 접근이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방법을 이용한 계량적 평가와 비구조화된 설문내용을 통한 평가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방법을 이용한 계량적 평가와는 달리 비구조화된 진술문의 분석에서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진술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노부모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 면에서의 변화는 현저하였다. 따라서 계량적 평가도구로 사용된 측정도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 평가하는데 있어서 계량적 도구가 가지는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가지는 한계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즉 대부분 1-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교육의 효과검증을 통계적 결과와 피험자의 개방형 진술응답 내용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선행연구들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홍숙자(1995), 홍숙자 외 2인(1995)의 연구에서는 계량적, 질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 이정연 외 2인(1996)의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만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평가방법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질적 방법으로서의 개방형 진술문에 의한 효과검증의 방법 이외에도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면에 있어서 교육의 기초 개념들과 내용구성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 자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혹은 대인관계 기술향상이라는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이를 구성하는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의 범주화의 측면이다.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기존 노부모 부양자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 차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적용해 본 결과, 6회기의 종합토론 시간에 나온 참가자들의 토론 내용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한 교육시간에 훨씬 활발한 역동성이 이루어졌음이 평가되었다. 따라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실시된 후, 이를 토대로 향상된 자존감 및 내적통제력을 대인관계기술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통계적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노부모자녀관계의 향상에 관한 내용을 심화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교육생들의 응답내용 중에서 심화교육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측면의 고려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회기를 재조정하는 방안과도 연결될 수 있다. 즉 오리엔테이션 회기와 개인수준의 개입회기의 성격이 강한 1회기, 3회기를 먼저 실시한 후 대인관계 수준의 개입의 성격이 강한 2회기, 4회기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합한 5회기와 토론회기인 6회기의 순서로 진행해 볼 수도 있다.

넷째, 사실 프로그램의 효과여부는 프로그램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진행자의 능력 또한 중요하다(이성희, 2002).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만큼 각 회기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각 회기마다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집단에서의 역동성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같은 사람이 6회기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지루함과 식상함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실제 6회기의 기본 구성지침과 각 회기별 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이 있었지만, 각 회기마다 진행자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방식 차이에 대한 교육생들의 적응에 대한 고려가 간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행자와 교육생들의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교육효과를 놓쳐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에 따라서 어떤 진행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를 들면 대상자의 단위가 개인이나 혹은 관계단위(예: 부부간, 고부간, 부모자녀간 등)이냐에 따라서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관계단위일 경우는 보다 신체활동이나 공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집단진행의 기술이 있는 보조집단진행자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이성희, 2002). 그러나 노인부양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는 본 프로그램에서 시도해 보았던 전문가의 강의구성이 적절하겠지만 전체의 연계나 흐름을 지속시키면서 이러한 측면이 만족될 수 있는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과 홍보 측면에서 제언을 해 보면,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1개월이 넘는 각종 홍보에도 불구하고 20여명정도만의 적은 수강생이 모집되어 일반인들의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따라서 먼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부모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연구의 관심이 단지 프로그램을 구성,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측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의 가족상담기관인 (사)전북가

족상담치료센터의 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과제로 채택되어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강의 구성이 가정학자들의 학문적 영역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의 득실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보급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하여 우리의 학문적 영역으로만 강의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지역사회의 타 전문영역과의 연계 속에서 가족생활교육의 저변확대 마련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초점이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가족생활교육의 영역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가정관리학의 사회적 인식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다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타 영역과의 연계를 꾀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족생활교육의 영역을 보급하고자 시행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결과분석에서 노부모-부양자간의 관계적 차원에서의 교육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점은 선행 노부모 부양자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학문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정교화된 노부모 부양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개발과 함께 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도구 개발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 접수일 : 2002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3년 1월 13일

#### 【참 고 문 헌】

- 김명자·김수연(1999). 효행자 가족의 부양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75-92.
-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노인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와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 65-84.
- 김상욱(2000). 재가노인부양의 태도 및 행위(III): 인과 경로모형의 개발 및 추정, *한국사회학*, 34, 137-167.
- 김수연·심혜숙(2001). 질적 분석을 통한 가족족자 기법 집단상담의 상담효과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39-258.
- 김태홍(2001). 노인부양의 현실과 그 새로운 방향: 1990년대 연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1), 27-41.
- 김현정·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 박정희·유영주(2000).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5-174.
- 변은주(1996). 대학생의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애(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순미·유영주(2002).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69-81.
-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경희(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65-276.
- 육선화·이형실·이춘희(1994).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부양자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2), 61-77.
-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서울: 교문사.
- 이성희(2002).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선택이론, 인지정서행동이론, 관계향상기법을 기초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1-24.
- 이성희·한은주(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회지* 18(3), 123-141.
- 이영자·김태현(1992).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할머니와 며느리의 비교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8(1), 75-90.
- 이경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4), 129-148.
- 이정연·정혜정·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교부관계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2-26.
- 이형득(1999).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 한국발달상담연구소.
- 진병재(1976). 자아존중감 척도, 행동과학연구소 편(1999), 심리척도 핸드북(174-176), 학지사.
- 정미향·김득성(2001). 결혼 전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69-84.
- 정현숙(2000). 부부관계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7-30.
- 홍숙자(1995).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 홍숙자·이형실·전길양(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5), 197-210.
- Giblin, P.(1996). Marriage and family enrichment : A process whose time has come(and gone?). *The Family Journal* 4(2), 143-153.
- Satir, V.M.(1967). *Cojo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 Science & Behavior Books.
- Glasser, W(1998). 김인자, 우애령 역(1998), 선택이론 행복의 심리,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Covey, S.R, Merrill, A.G & Merrill, R. R(1994). 김경섭 역(1997).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서울: 김영사.